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정책 수립을 위한 도서관 직원의 인식 연구*

- C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wareness of Library Employees for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Library Policy: Focusing on C City case

김 홍 렬 (Hong-Ryul Kim)**

김 보 일 (Bo-il Kim)***

< 목 차 >

I. 서 론	IV. 연구 결과
II. 선행 연구	V.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정책 수립 방향
III. 연구 설계 및 방법	VI. 결 론

요 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주체인 도서관 직원들의 의견과 인식을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도서관 직원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특성화 운영의 내실화와 특성화 간의 균형 잡힌 시각에서 판단해야 하며, 신규건립보다는 리모델링 등 노후시설 개선이 우선적이며,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할 수 있는 도서관 정책의 수립 등의 기본 방향이 도출되었다.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도서관 정책, 도서관 직원, 정책 인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iews and perceptions of library staff, who play a central role in creating and advancing library polic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se findings are intended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aiding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in developing informed library policies. Based on the survey of library staff perceptions, the study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approach library specialization with a balanced view, focusing on enhancing both operational effectiveness and distinctiveness. The findings indicate that upgrading aging facilities through renovations should take precedence over constructing new ones. Furthermore,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redefining public libraries' roles and functions and establishing library policies that promote harmonious engagement with the local community.

KEYWORDS: Local Governments, Public Libraries, Library Policies, Library Staff, Policy Awareness

* 이 논문은 2024년 '춘천시립공공도서관 중장기종합발전계획(2024~2028) 수립 용역'으로 발표한 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임.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hykim505@jj.ac.kr / ISNI 0000 0004 6455 7676) (제1저자)

***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imboil1979@hnu.kr / ISNI 0000 0004 6815 1032)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4년 11월 23일 • 최초심사: 2024년 12월 3일 • 게재확정: 2024년 12월 16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4), 27-47, 2024. <http://dx.doi.org/10.16981/kliss.55.4.202412.27>

※ Copyright © 2024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관심은 2000년대 이후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 다양한 요구를 가진 시민들의 도서관 유입을 높이기 위한 신규 서비스의 개발과 특성화 도서관 운영, 정보의 생산량 급증에 따른 정보 선택의 피로도를 줄이는 서비스 추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존 도서관 서비스의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도서관의 기능 확대 및 패러다임의 변화, 인문·사회적 환경 및 기술적 환경 변화, 그리고 정부차원의 도서관 발전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공공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하면서 매우 다양한 기능이 도서관에서 부여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은 종래의 독서와 학습중심에서 독서와 학습, 문화프로그램 등 전통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의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과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서의 기능, 나아가 체류형 도서관으로의 기능까지도 언급되고 있다.

동시에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개발과 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문·사회적 환경과 기술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구의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1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주의 심화, 공동체 붕괴 등의 인문·사회적 환경변화와 ChatGPT, ICT의 도입, AR/VR 등을 활용한 서비스의 도입, 생성형 AI 등 기술적 환경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국가도서관위원회(2024)에서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여 현재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많은 핵심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물론 이들 과제는 공공도서관 뿐 만 아니라 타 관종의 도서관 추진과제도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상당수 포함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정책의 개발과 추진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화 환경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사서를 포함하는 도서관 인력은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지역이 상당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추진은 업무의 강도를 집중시켜 오히려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주체인 도서관 직원들의 의견과 인식을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구 용역을 통해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한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을 위해 이용자인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립의 방법을 통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주요 선행연구로 박승진 외(2017), 심효정, 노영희(2022), 진경선, 신동희(2022), 김보일(2023), 심효정, 이용훈(2024), 윤현수, 장인호, 심효정(2024) 등이 있으며, 설문·인터뷰(면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박승진 외(2017)는 울산의 대표도서관인 울산도서관의 운영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이용자와 함께 도서관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울산 공공도서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에 있어 미디어 매체 활용 선호, 다양한 문화 활동 체험 공간으로 공공도서관을 인식하는 등을 바탕으로 도서관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보일(2023)은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법제도 및 환경 분석과 더불어 이용자와 함께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제안하였다.

심효정, 노영희(2022)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및 추진 중인 특화도서관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도서관 직원들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특화도서관 운영현황과 인식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특화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운영 및 연간사업계획 수립 시 특화도서관 서비스 관련 계획을 포함해 장서 추가 확보, 차별화된프로그램 구성, 전담사서 배치, 한국도서관협회 및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한 주제 전문 교육 실시와 특화주제별, 대상별서비스 제공 매뉴얼 개발·보급, 충분한 예산확보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심효정, 이용훈(2024)은 의왕시의 도서관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환경 분석 및 도서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직원간담회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충분한 도서관 인프라 제공, 시민에게 맞춤형 지식정보 활동 제공, 명품도시 의왕시 구현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와 하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윤현수, 장인호, 심효정(2024)은 가평군 공공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도서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도서관 자료 확보, 협력형 정보서비스, 이용자 휴식공간, 홍보 활동 강화, 사서 인력 충원 등 가평군에 특화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진경선, 신동희(2022)는 양평군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도서관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용자뿐만 아니라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조사를 위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양평군 도서관의 문제점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역 중심의 생활밀착형 도서관, 인력 및 장서 확충, 지역사회

변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신규 도서관 건립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요 선행 연구를 통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 환경 분석 및 이용자의 의견 조사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 주체인 도서관 지원의 인식이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직원의 의견 수립과 참여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직원에 대한 의견 조사가 특정 분야 또는 제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정책 수립을 위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도서관 정책 수립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및 방법

1. 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조사는 C시의 공공도서관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 6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의 방식은 QR코드 및 링크를 직원들에 전달하여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를 2024년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C시 공공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속 도서관, 직급별, 사서자격증 소지 유무로 구분하여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도서관 특성화, 공공도서관 건립확충, 도서관 운영 방향 및 정책 등 크게 4가지 영역이다.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조사의 내용

조사영역	문항수	조사내용
인구통계학적 특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연령 - 소속 도서관 - 직급 - 사서자격증 유무
도서관 특성화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필요성 - 특성화 주제 - 특성화에 대한 자유 의견
도서관 건립확충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 필요성 - 건립 규모 - 역할과 기능 - 선호하는 건물 형태 - 건립에 대한 자유의견

조사영역	문항수	조사내용
도서관 운영 및 정책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대상 - 도서관의 역할(중요도) - 정책 방향 - 지역 협력 - 미래 지향적 키워드 - 기대 및 요망 내용

2. 인구통계학적 특성

C시 공공도서관 전체 직원 중에서 57명이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체 직원의 85.1%에 해당한다.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 여성 43명(75.4%), 남성 17명(24.6%)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응답 결과 40대가 19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17명(29.8%), 50대 이상 15명(26.3%), 20대 6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 도서관에 따른 결과 A도서관이 28명(49.1%)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B도서관 16명(28.1%), C도서관 5명(8.8%), F도서관과 H도서관이 각각 3명(5.3%), E도서관 2명(3.5%)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따른 응답 결과는 공무원이 23명(4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무관 20명(35.1%), 팀장 8명(14.0%), 기타 4명(7.4%), 관장 2명(3.5%) 순으로 나타났다. 즉, 관리자에 해당하는 관장, 팀장보다 실무자인 주무관, 공무원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사서 자격증 소지 유무에 따른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2명(53.1%)로 ‘없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25명(43.9%) 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인원(명)	비율(%)
전체		57	100.0
성별	여성	43	75.4
	남성	17	24.6
	소계	57	100.0
연령	20대	6	10.5
	30대	17	29.8
	40대	19	33.3
	50대 이상	15	26.3
	소계	57	100.0

구분		인원(명)	비율(%)
소속 도서관	A도서관	28	49.1
	B도서관	16	28.1
	C도서관	5	8.8
	D도서관	-	-
	E도서관	2	3.5
	F도서관	3	5.3
	G도서관	-	-
	H도서관	3	5.3
	소계	57	100.0
직급	관장	2	3.5
	팀장	8	14.0
	주무관	20	35.1
	공무직	23	40.4
	기타	4	7.4
	소계	57	100.0
사서 자격증	있다	32	53.1
	없다	25	43.9
	소계	57	100.0

IV. 연구 결과

1. 도서관 특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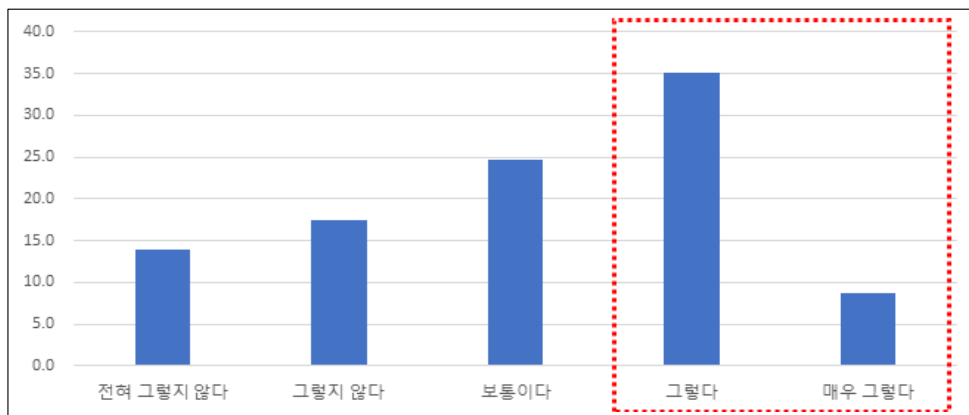
가. 특성화의 필요성

직원들의 도서관 특성화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7명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25명(43.9%)만이 도서관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서는 30대 이상에서는 도서관의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20대는 응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직급별에서는 ‘공무직’에서 12명(52.0%)이 도서관의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관장’ 1명(50.0%), ‘주무관’ 9명(45.0%), ‘팀장’·‘기타’가 각각 1명(25.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서자격증 소지 유무에 따라서는 사서보다 비사서에서 도서관의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사서와 비사서가 도서관 특성화에 대해 상이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3〉 특성화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상세										종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불필요		보통		필요	
전체		57	8	14.0	10	17.5	14	24.6	20	35.1	5	8.8	18	31.6	14	24.6	25	43.9
연령	20대	6	1	16.7	2	33.3	3	50.0	0	0.0	0	0.0	3	50.0	3	50.0	0	0.0
	30대	17	4	23.5	1	5.9	4	23.5	5	29.4	3	17.6	5	29.4	4	23.5	8	47.1
	40대	19	3	15.8	3	15.8	4	21.1	9	47.4	0	0.0	6	31.6	4	21.1	9	47.4
	50대 이상	15	0	0.0	4	26.7	3	20.0	6	40.0	2	13.3	4	26.7	3	20.0	8	53.3
	소계	57	8	14.0	10	17.5	14	24.6	20	35.1	5	8.8	18	31.6	14	24.6	25	43.9
직급	관장	2	0	0.0	1	50.0	0	0.0	0	0.0	1	50.0	1	50.0	0	0.0	1	50.0
	팀장	8	1	12.5	2	25.0	3	37.5	1	12.5	1	12.5	3	37.5	3	37.5	2	25.0
	주무관	20	2	10.0	4	20.0	5	25.0	6	30.0	3	15.0	6	30.0	5	25.0	9	45.0
	공무직	23	3	13.0	2	8.7	6	26.1	12	52.2	0	0.0	5	21.7	6	26.1	12	52.2
	기타	4	2	50.0	1	25.0	0	0.0	1	25.0	0	0.0	3	75.0	0	0.0	1	25.0
	소계	57	8	14.0	10	17.5	14	24.6	20	35.1	5	8.8	18	31.6	14	24.6	25	43.9
사서 자격 증	있다	32	4	12.5	7	21.9	9	28.1	8	25.0	4	12.5	11	34.4	9	28.1	12	37.5
	없다	25	4	16.0	3	12.0	5	20.0	12	48.0	1	4.0	7	28.0	5	20.0	13	52.0
	소계	57	8	14.0	10	17.5	14	24.6	20	35.1	5	8.8	18	31.6	14	24.6	25	43.9



〈그림 1〉 특성화 필요성

나. 특성화 주제

도서관이 특성화를 한다면 적합한 주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7명 중 29명(50.9%)이 '힐링 및 여행'을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예술' 18명(31.6%), '건강' 14명(24.6%), '지역자료' 13명(2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서도 모두 '힐링 및 여행'을 특성화에 가장 적합한 주제로 응답하였다. 다만, 20대는 동일하게 '건강'(3명, 50.0%)을 응답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에서는 동일하게 '지역자료'(6명, 40.0%)를 응답하였다. 직급별에서는 '관장',

‘주무관’, ‘공무직’은 ‘힐링 및 여행’을 특성화에 가장 적합한 주제로 응답하였으나, ‘팀장’은 ‘건강’(5명, 62.5%), ‘기타’는 ‘예술’(3명, 75.0%)을 특성화 주제로 응답하였다. 이에 도서관 특성화 주제로 ‘힐링 및 여행’이 전 연령과 직급에서 가장 선호되었으며, 일부 집단에서는 ‘건강’, ‘지역자료’, ‘예술’도 중요한 주제로 나타났다.

〈표 4〉 특성화 주제(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건강		생태 · 환경		음식		예술		문학		지역 자료		힐링 및 여행		육아		기타	
전체		57	14	24.6	9	15.8	5	8.8	18	31.6	17	29.8	13	22.8	29	50.9	6	10.5	3	5.3
연령	20대	6	3	50.0	1	16.7	1	16.7	2	33.3	2	33.3	0	0.0	3	50.0	0	0.0	0	0.0
	30대	17	1	5.9	1	5.9	1	5.9	9	52.9	6	35.3	6	35.3	8	47.1	2	11.8	0	0.0
	40대	19	6	31.6	4	21.1	1	5.3	4	21.1	6	31.6	1	5.3	12	63.2	3	15.8	1	5.3
	50대 이상	15	4	26.7	3	20.0	2	13.3	3	20.0	3	20.0	6	40.0	6	40.0	1	6.7	2	13.3
	소계	57	14	24.6	9	15.8	5	8.8	18	31.6	17	29.8	13	22.8	29	50.9	6	10.5	3	5.3
직급	관장	2	0	0.0	0	0.0	0	0.0	1	50.0	0	0.0	1	50.0	1	50.0	0	0.0	1	50.0
	팀장	8	5	62.5	1	12.5	1	12.5	0	0.0	1	12.5	4	50.0	3	37.5	0	0.0	1	12.5
	주무관	20	3	15.0	2	10.0	2	10.0	7	35.0	7	35.0	6	30.0	10	50.0	2	10.0	1	5.0
	공무직	23	5	21.7	4	17.4	2	8.7	7	30.4	8	34.8	2	8.7	14	60.9	4	17.4	0	0.0
	기타	4	1	25.0	2	50.0	0	0.0	3	75.0	1	25.0	0	0.0	1	25.0	0	0.0	0	0.0
	소계	57	14	24.6	9	15.8	5	8.8	18	31.6	17	29.8	13	22.8	29	50.9	6	10.5	3	5.3
사서 자격 증	있다	32	9	28.1	5	15.6	3	9.4	10	31.3	9	28.1	11	34.4	13	40.6	1	3.1	3	9.4
	없다	25	5	20.0	4	16.0	2	8.0	8	32.0	8	32.0	2	8.0	16	64.0	5	20.0	0	0.0
	소계	57	14	24.6	9	15.8	5	8.8	18	31.6	17	29.8	13	22.8	29	50.9	6	10.5	3	5.3

다. 특성화에 대한 자유 의견

도서관의 특성화에 대한 의견은 크게 기존 도서관 기능의 유지와 쾌적한 환경을 중시하는 의견(특성화 반대 의견)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가 필요(특성화 찬성 의견)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성화하지 말고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며 도서관 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것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정 주제에 대한 특성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대중적으로 많이 대출되는 도서들은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는 우려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특성화에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으로 하는 도서관이 필요하며, 특히 전문분야(음악, 미술 등) 중심의 특성화 도서관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별로 다른 특화 주제를 설정하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도 찾아올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도 있었다. 다만, 특성화 추진 시,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주제를 도입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자원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 도서관 건립 및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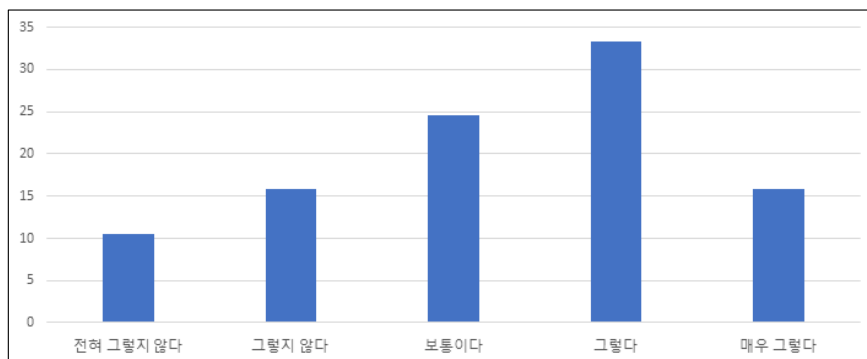
가. 도서관 건립 필요성

도서관 건립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7명 중 28명(49.1%)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C시 도서관 직원들은 새로운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에서는 '40대'와 '30대'에서 건립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20대'·'50대 이상'에서는 도서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직급별에서는 '팀장'에서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나지만, 공무원과 기타 직렬에서는 건립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도서관 건립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상세										종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불필요		보통		필요	
전체		57	6	10.5	9	15.8	14	24.6	19	33.3	9	15.8	15	26.3	14	24.6	28	49.1
연령	20대	6	1	16.7	1	16.7	2	33.3	1	16.7	1	16.7	2	33.3	2	33.3	2	33.3
	30대	17	0	0.0	1	5.9	7	41.2	4	23.5	5	29.4	1	5.9	7	41.2	9	52.9
	40대	19	2	10.5	4	21.1	2	10.5	10	52.6	1	5.3	6	31.6	2	10.5	11	57.9
	50대 이상	15	3	20.0	3	20.0	3	20.0	4	26.7	2	13.3	6	40.0	3	20.0	6	40.0
	소계	57	6	10.5	9	15.8	14	24.6	19	33.3	9	15.8	15	26.3	14	24.6	28	49.1
직급	관장	2	0	0.0	0	0.0	1	50.0	0	0.0	1	50.0	0	0.0	1	50.0	1	50.0
	팀장	8	2	25.0	3	37.5	0	0.0	2	25.0	1	12.5	5	62.5	0	0.0	3	37.5
	주무관	20	1	5.0	3	15.0	7	35.0	5	25.0	4	20.0	4	20.0	7	35.0	9	45.0
	공무직	23	3	13.0	3	13.0	5	21.7	11	47.8	1	4.3	6	26.1	5	21.7	12	52.2
	기타	4	0	0.0	0	0.0	1	25.0	1	25.0	2	50.0	0	0.0	1	25.0	3	75.0
	소계	57	6	10.5	9	15.8	14	24.6	19	33.3	9	15.8	15	26.3	14	24.6	28	49.1
사서 자격 증	있다	32	2	6.3	8	25.0	6	18.8	9	28.1	7	21.9	10	31.3	6	18.8	16	50.0
	없다	25	4	16.0	1	4.0	8	32.0	10	40.0	2	8.0	5	20.0	8	32.0	12	48.0
	소계	57	6	10.5	9	15.8	14	24.6	19	33.3	9	15.8	15	26.3	14	24.6	28	49.1



〈그림 2〉 공공도서관 건립 필요성

나. 건립 규모

새로운 공공도서관이 어느 정도의 건립 규모가 되어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7명 중 19명(33.3%)이 '중소규모(1,500㎡~2,500㎡)'를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중규모(2,500㎡~5,500㎡)' 16명(28.1%), '대규모(5,500㎡ 이상)' 13명(2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서는 '20대'·'30대'가 '중규모(2,500㎡~5,500㎡)'를 적합한 규모로 응답하였으나, '40대'는 보다 작은 '중소규모(1,500㎡~2,500㎡)'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은 '대규모(5,500㎡ 이상)'를 선호 규모로 인식하고 있어 건립 규모에서는 연령별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직급별에서는 직급이 높을수록 건립하는 도서관은 큰 규모의 도서관이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 사서자격 유무에서도 건립 규모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연령대에 따라 선호하는 도서관 규모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직급이 높을수록 큰 규모의 도서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실무자와 관리자 간에 도서관의 역할과 필요 공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6〉 건립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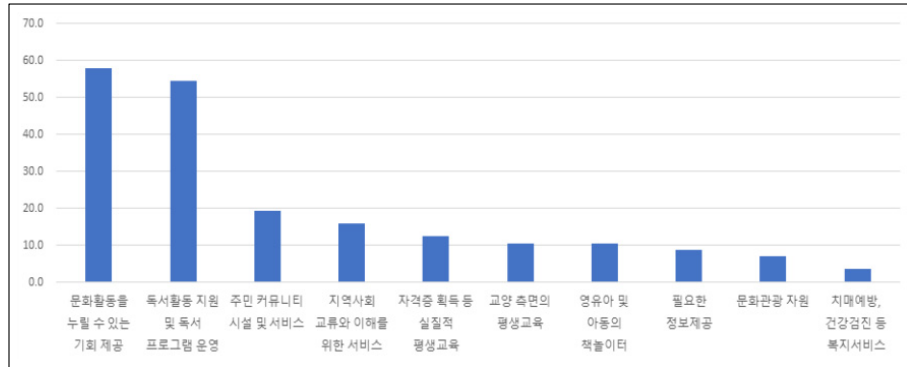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작은규모 (330㎡ 이하)		소규모 (1,500㎡ 이하)		중소규모 (1,500㎡~2,500㎡)		중규모 (2,500㎡~5,500㎡)		대규모 (5,500㎡ 이상)	
전체	57	4	7.0	5	8.8	19	33.3	16	28.1	13	22.8
연령	20대	6	16.7	1	16.7	1	16.7	3	50.0	0	0.0
	30대	17	5.9	1	5.9	5	29.4	6	35.3	4	23.5
	40대	19	0.0	0	0.0	10	52.6	5	26.3	4	21.1
	50대 이상	15	13.3	3	20.0	3	20.0	2	13.3	5	33.3
	소계	57	7.0	5	8.8	19	33.3	16	28.1	13	22.8
직급	관장	2	0.0	1	50.0	0	0.0	0	0.0	1	50.0
	팀장	8	0.0	1	12.5	1	12.5	0	0.0	6	75.0
	주무관	20	20.0	0	0.0	6	30.0	6	30.0	4	20.0
	공무직	23	0.0	3	13.0	11	47.8	7	30.4	2	8.7
	기타	4	0.0	0	0.0	1	25.0	3	75.0	0	0.0
	소계	57	7.0	5	8.8	19	33.3	16	28.1	13	22.8
사서 자격증	있다	32	3.1	3	9.4	8	25.0	10	31.3	10	31.3
	없다	25	12.0	2	8.0	11	44.0	6	24.0	3	12.0
	소계	57	7.0	5	8.8	19	33.3	16	28.1	13	22.8

다. 신규 건립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신규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7명 중 33명(57.9%)이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31명(54.4%), '주민 커뮤니티 시설 및 서비스' 11명(19.3%), '지역사회 교류와 이해를 위한 서비스' 9명(15.8%), '자격증 획득 등 실질적 평생교육' 7명(12.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신규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도서관 공간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 신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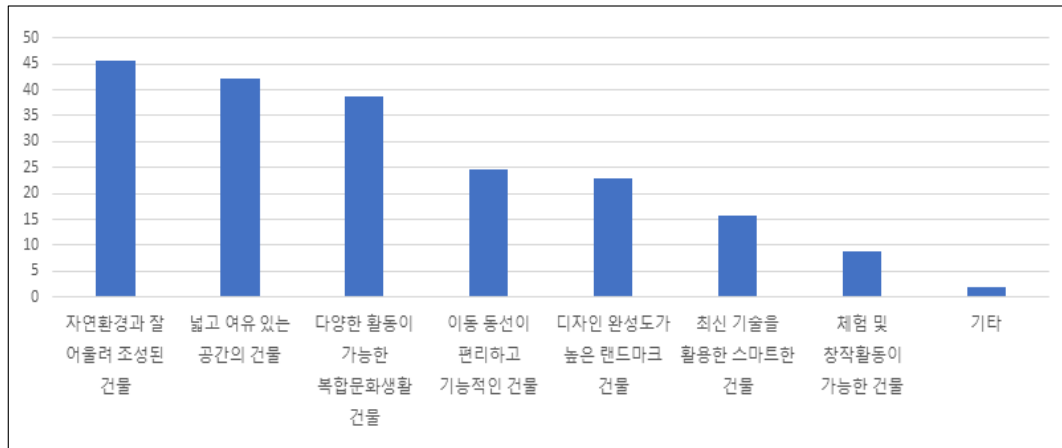
라. 선호하는 건물 형태

새로운 공공도서관 건립 시 선호하는 건물 형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7명 중 26명(45.6%) 이 ‘자연환경과 잘 어울려 조성된 건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넓고 여유 있는 공간의 건물’ 24명(42.1%),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생활 건물’ 22명(38.6%), ‘이동 동선이 편리하고 기능적인 건물’ 14명(24.6%), ‘디자인 완성도가 높은 랜드마크 건물’ 13명(2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도서관 직원들은 새로운 공공도서관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건물로서 도서관 외관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7〉 선호하는 건물 형태(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넓고 여유 있는 공간의 건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생활 건물		디자인 완성도가 높은 랜드마크 건물		자연환경과 잘 어울려 조성된 건물		이동 동선이 편리하고 기능적인 건물		체험 및 창작활동이 가능한 건물		최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건물		기타	
전체	57	24	42.1	22	38.6	13	22.8	26	45.6	14	24.6	5	8.8	9	15.8	1	1.8
연령	20대	6	16.7	4	66.7	1	16.7	1	16.7	3	50.0	0	0.0	2	33.3	0	0.0
	30대	17	41.2	7	41.2	4	23.5	6	35.3	6	35.3	4	23.5	0	0.0	0	0.0
	40대	19	57.9	5	26.3	2	10.5	11	57.9	4	21.1	0	0.0	5	26.3	0	0.0
	50대 이상	15	33.3	6	40.0	6	40.0	8	53.3	1	6.7	1	6.7	2	13.3	1	6.7
	소계	57	42.1	22	38.6	13	22.8	26	45.6	14	24.6	5	8.8	9	15.8	1	1.8
직급	관장	2	50.0	0	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1	50.0
	팀장	8	25.0	4	50.0	4	50.0	3	37.5	1	12.5	0	0.0	2	25.0	0	0.0
	주무관	20	30.0	8	40.0	5	25.0	11	55.0	4	20.0	4	20.0	2	10.0	0	0.0
	공무직	23	56.5	8	34.8	1	4.3	11	47.8	8	34.8	1	4.3	4	17.4	0	0.0
	기타	4	50.0	2	50.0	2	50.0	0	0.0	1	25.0	0	0.0	1	25.0	0	0.0
	소계	57	42.1	22	38.6	13	22.8	26	45.6	14	24.6	5	8.8	9	15.8	1	1.8
사서 자격증	있다	32	37.5	12	37.5	12	37.5	12	37.5	7	21.9	3	9.4	5	15.6	1	3.1
	없다	25	48.0	10	40.0	1	4.0	14	56.0	7	28.0	2	8.0	4	16.0	0	0.0
	소계	57	42.1	22	38.6	13	22.8	26	45.6	14	24.6	5	8.8	9	15.8	1	1.8



〈그림 4〉 선호하는 건물 형태(중복응답)

마. 도서관 건립에 대한 자유 의견

도서관 건립에 대한 직원들의 자유 의견을 살펴보면, 기존 도서관의 통폐합 및 리모델링, 접근성 강화, 고령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확대, 최신 기술을 접목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발전, 도서관의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중시하고 있으며, 도서관 확충에 따른 인력과 자원 확충 필요 등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도서관 수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건립보다는 기존 도서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내실 있게 하는 방향, 즉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이 더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접근성과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도서관 건립 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정 편의적인 위치 선정보다는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에 기반한 위치 선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층을 위한 도서관 복지 프로그램과 시설(예, 큰글자 도서 확보, 고령자를 위한 특화 공간) 등이 오히려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기술과 혁신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AI와 같은 최신 기술을 접목한 첨단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며, 새로이 건립되는 도서관은 기존과 다른 차별화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내실 있는 운영과 인력 확충은 필수적이다. 새로운 도서관 건립 시 원활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도서관 직원 확충과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여섯째,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과 기능 수행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서관은 단순한 책 대출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대공감 공간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도서관 운영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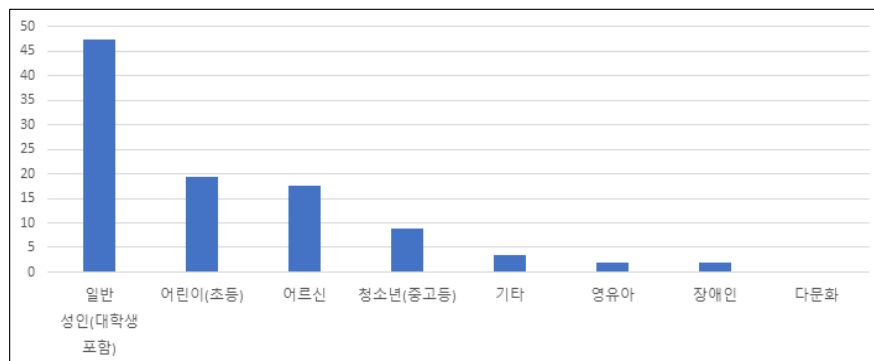
가. 정책 대상

도서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대상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7명 중 27명(47.4%)이 ‘일반 성인(대학생 포함)’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다음으로 ‘어린이(초등)’ 11명(19.3%), ‘어르신’ 10명(17.5%)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에서도 ‘20대~40대’는 ‘일반 성인(대학생 포함)’을 C시 공공도서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 대상으로 응답하였으나 ‘50대 이상’은 ‘어린이(초등)’·‘청소년(중고등)’을 응답하여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 사서자격증 유무에서는 모두 ‘일반 성인(대학생 포함)’을 C시 공공도서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 대상으로 응답하였다.

〈표 8〉 정책 대상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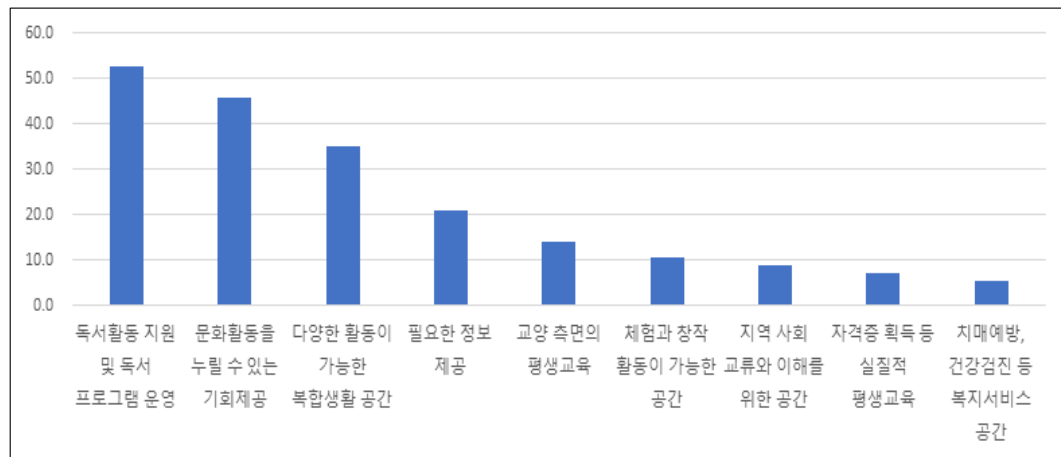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영유아		어린이 (초등)		청소년 (중고등)		일반 성인 (대학생 포함)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기타	
연령	전체	57	1	1.8	11	19.3	5	8.8	27	47.4	10	17.5	1	1.8	-	-	2	3.5	
	20대	6	0	0.0	0	0.0	1	16.7	4	66.7	0	0.0	1	16.7	-	-	0	0.0	
	30대	17	0	0.0	4	23.5	0	0.0	9	52.9	3	17.6	0	0.0	-	-	1	5.9	
	40대	19	0	0.0	3	15.8	0	0.0	11	57.9	5	26.3	0	0.0	-	-	0	0.0	
	50대 이상	15	1	6.7	4	26.7	4	26.7	3	20.0	2	13.3	0	0.0	-	-	1	6.7	
	소계	57	1	1.8	11	19.3	5	8.8	27	47.4	10	17.5	1	1.8	-	-	2	3.5	
직급	관장	2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	-	1	50.0	
	팀장	8	1	12.5	3	37.5	0	0.0	2	25.0	2	25.0	0	0.0	-	-	0	0.0	
	주무관	20	0	0.0	3	15.0	3	15.0	10	50.0	4	20.0	0	0.0	-	-	0	0.0	
	공무직	23	0	0.0	4	17.4	2	8.7	13	56.5	3	13.0	1	4.3	-	-	0	0.0	
	기타	4	0	0.0	0	0.0	0	0.0	2	50.0	1	25.0	0	0.0	-	-	1	25.0	
	소계	57	1	1.8	11	19.3	5	8.8	27	47.4	10	17.5	1	1.8	-	-	2	3.5	
사서 자격 증	있다	32	1	3.1	7	21.9	2	6.3	14	43.8	6	18.8	0	0.0	-	-	2	6.3	
	없다	25	0	0.0	4	16.0	3	12.0	13	52.0	4	16.0	1	4.0	-	-	0	0.0	
	소계	57	1	1.8	11	19.3	5	8.8	27	47.4	10	17.5	1	1.8	-	-	2	3.5	



〈그림 5〉 정책 대상

나. 도서관의 역할(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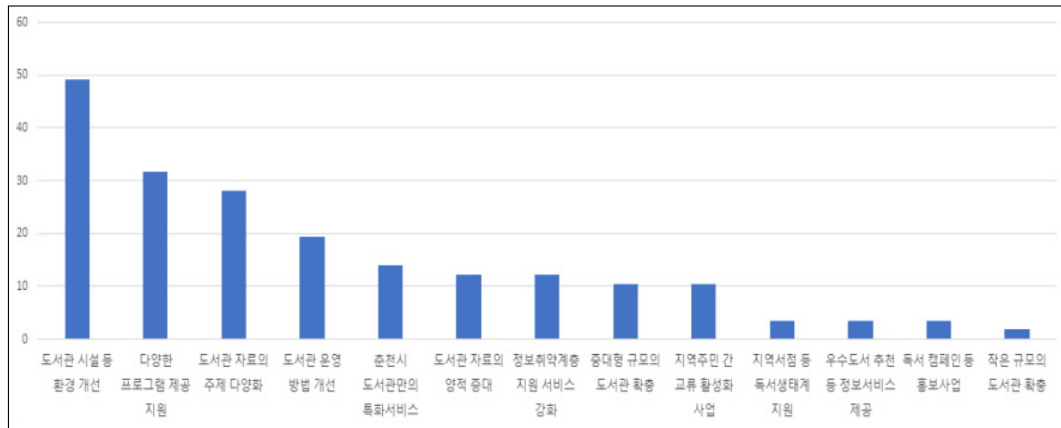
도서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7명 중 30명(52.6%)이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제공’ 26명(45.6%),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생활 공간 제공’ 20명(3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서도 ‘30대’ 제외, 직급별에서는 ‘주무관’을 제외하고 이외는 모두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C시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응답하였다. 사서자격증 유무에서도 모두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C시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응답하였다.



〈그림 6〉 도서관 역할(중요도, 중복응답)

다. 정책 방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도서관 정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7명 중 28명(49.1%)이 ‘도서관 시설 등 환경 개선’으로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원’ 18명(31.6%), ‘도서관 자료의 주제 다양화’ 16명(28.1%), 도서관 운영 방법 개선, 특화서비스, 도서관 자료의 양적 증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서는 ‘40대’를 제외하고 ‘도서관 시설 등 환경 개선’을 춘천시 도서관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응답하였으며, ‘40대’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응답하였다. 그러나 ‘20대’에서는 응답자 6명(100.0%) 모두 ‘도서관 시설 등 환경 개선’을 응답하여 비교적 최근 개관한 C시의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에 대해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개선이 필요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서자격증 유무에서도 모두 도서관 시설 등 환경 개선을 춘천시 도서관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7〉 정책 방향(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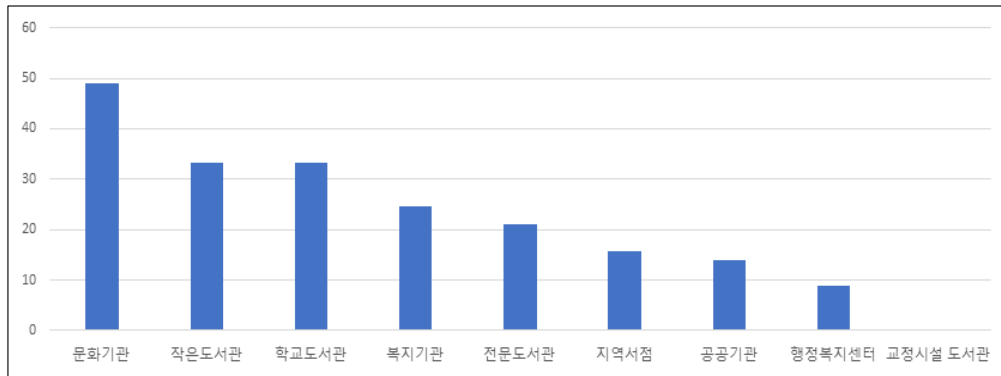
라. 지역 내 협력대상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도서관과 협력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직원들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7명 중 28명(49.2%)이 ‘문화기관’으로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학교도서관’·‘작은 도서관’이 각각 19명(33.3%), ‘복지기관’ 14명(24.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전문도서관, 지역서점, 공공기관 등의 응답이 있었다. 다만, ‘교정시설 도서관’을 협력 대상으로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직급별에서도 모두 ‘문화기관’을 도서관과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관장’·‘팀장’은 동일한 비율로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다른 대상을 응답하고 있다. 사서 자격증 유무에서는 사서는 문화기관을 도서관과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 비사서는 ‘작은도서관’을 응답하고 있어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9〉 지역 협력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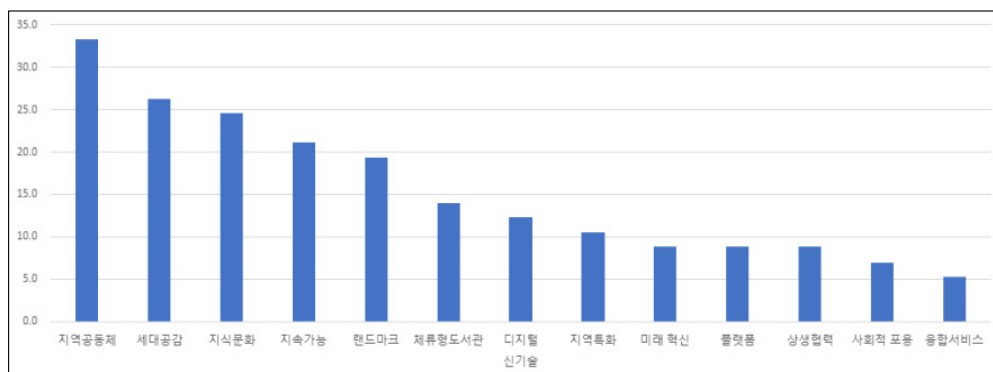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공공 기관		작은 도서관		학교 도서관		문화 기관		복지 기관		행정복지 센터		지역 서점		교정시설 도서관		전문 도서관		기타	
연령	전체	57	8	14.0	19	33.3	19	33.3	28	49.1	14	24.6	5	8.8	9	15.8	-	-	12	21.1	-	-	
	20대	6	1	16.7	1	16.7	3	50.0	1	16.7	2	33.3	0	0.0	2	33.3	-	-	2	33.3	-	-	
	30대	17	3	17.6	4	23.5	7	41.2	12	70.6	4	23.5	2	11.8	0	0.0	-	-	2	11.8	-	-	
	40대	19	2	10.5	8	42.1	1	5.3	9	47.4	6	31.6	2	10.5	5	26.3	-	-	5	26.3	-	-	
	50대 이상	15	2	13.3	6	40.0	8	53.3	6	40.0	2	13.3	1	6.7	2	13.3	-	-	3	20.0	-	-	
	소계	57	8	14.0	19	33.3	19	33.3	28	49.1	14	24.6	5	8.8	9	15.8	-	-	12	21.1	-	-	
직급	관장	2	0	0.0	1	50.0	1	50.0	1	50.0	0	0.0	1	50.0	0	0.0	-	-	0	0.0	-	-	
	팀장	8	1	12.5	3	37.5	4	50.0	4	50.0	1	12.5	0	0.0	2	25.0	-	-	1	12.5	-	-	
	주무관	20	3	15.0	7	35.0	6	30.0	11	55.0	6	30.0	1	5.0	2	10.0	-	-	4	20.0	-	-	
	공무직	23	4	17.4	6	26.1	7	30.4	11	47.8	5	21.7	2	8.7	5	21.7	-	-	6	26.1	-	-	
	기타	4	0	0.0	2	50.0	1	25.0	1	25.0	2	50.0	1	25.0	0	0.0	-	-	1	25.0	-	-	
	소계	57	8	14.0	19	33.3	19	33.3	28	49.1	14	24.6	5	8.8	9	15.8	-	-	12	21.1	-	-	
사서 자격증	있다	32	3	9.4	8	25.0	15	46.9	18	56.3	9	28.1	1	3.1	6	18.8	-	-	4	12.5	-	-	
	없다	25	5	20.0	11	44.0	4	16.0	10	40.0	5	20.0	4	16.0	3	12.0	-	-	8	32.0	-	-	
	소계	57	8	14.0	19	33.3	19	33.3	28	49.1	14	24.6	5	8.8	9	15.8	-	-	12	21.1	-	-	



〈그림 8〉 지역 협력 대상(중복응답)

마. 도서관 미래지향 키워드

도서관의 미래 지향성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에 대한 도서관 직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7명 중 19명(33.3%)이 ‘지역공동체’를 미래지향 키워드로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세대공감’ 15명(26.3%), ‘지식문화’ 14명(24.6%), ‘지속 가능’ 12명(21.1%), ‘랜드마크’ 11명(19.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채류형도서관’, ‘디지털 신기술’, ‘지역특화’, ‘미래혁신’, ‘플랫폼’, ‘상생협력’, ‘사회적 포용’, ‘융합서비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도서관은 지역공동체의 중심 허브로서 주민들을 연결하고, 세대 간 소통과 포용을 강화하며 사회적 가치를 증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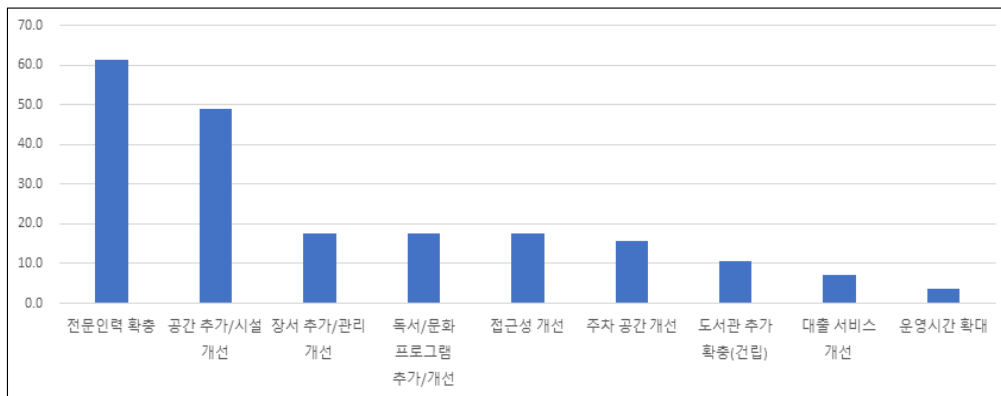


〈그림 9〉 미래지향 키워드(중복응답)

바.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에 대한 기대 및 바라는 것(중복응답)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기대, 그리고 바라는 것에 대한 도서관 직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7명 중 35명(61.4%)이 ‘전문인력 확충’으로 응답하여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다음으로 ‘공간 추가/시설 개선’ 28명(49.1%), ‘장서 추가/관리 개선’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추가/개선’과 ‘접근성 개선’이 각각 10명(17.5%)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주차공간 개선’, ‘도서관 추가 확충’, ‘대출서비스 개선’, ‘운영시간 확대’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도서관 운영 개선을 위해 전문인력 확충, 공간 및 시설 개선, 서비스와 접근성 강화, 그리고 부대시설 및 운영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그림 10〉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에 대한 기대 및 원하는 것(중복응답)

V.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정책 수립 방향

C시 지역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도서관 직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 특성 반영과 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한 균형 있는 접근

C시의 도서관 특성화에 추진함에 있어 도서관 직원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고 있으며, 기존 도서관 역할과 기능의 강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추진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특성화 찬성의견으로는 지역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특성화 주제 발굴 및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며, 반대의견으로는 도서관 특성화 추진에 에너지 분산보다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직원 의견조사 결과 특성화 시 적합한 주제로 ‘힐링 및 여행’(50.9%)이 가장 적합한 주제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특성화에 대한 포괄적인 불필요성에 대한 의견(불필요 31.6%, 보통 24.6%)과

특성화 필요성에 대하여 사서(37.5%)가 비사서(52.0%) 보다 낮은 응답을 한 점 등 직접적인 특성화 추진 인력인 사서의 특성화 관련 의견 검토 필요하다.

이에 특성화 추진 시 지역 특성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되,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역할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며, 사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2. 도서관 건립의 적정성 검토와 그에 따른 전문 인력 배치

도서관 건립의 적정성 검토와 그에 따른 전문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이전에 지역에서 운영중인 도서관의 적정성 수준을 먼저 검토한 후에 건립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립보다는 리모델링이 더 우선적이라고 판단되면 리모델링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즉 신규건립과 도서관 시설과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리모델링과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판단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 인식 조사 결과에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49.1%보다 포괄적인 불필요성(불필요 26.3%, 보통 24.6%)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팀장' 직급에서의 도서관 건립 불필요 의견(62.5%)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C시 도서관 정책 방향으로 '도서관 시설 등 환경 개선'(49.1%)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신규 도서관의 건립 시 C시의 시민 접근성과 기존 도서관과의 서비스 범위 등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기존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열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도서관의 신규 건립 시에는 반드시 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도서관은 건립하되, 해당 인력을 확충하지 못하면 기존 직원의 노동강도가 더욱 집중되어 서비스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

3. 공공도서관 역할 및 기능 재정립과 조직개편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는 조직의 개편도 필요하다. 직원들이 인식하고 중요도가 높은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직원 인식 조사 결과 C시 공공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로 '독서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52.6%),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제공'(45.6%),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생활 공간'(35.1%) 등 다양한 도서관 역할을 요구하였다. 즉 도서관은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해야 하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 및 학습뿐만 아니라 휴식과 치유의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생활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 기능과 역할의 확대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조직의 개편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낫다.

4.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 수립

지역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상생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도서관은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이 모이고 소통하는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문화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지역 공동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직원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C시 내에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연령별, 직급별, 사서자격증 유무 등 모두 ‘문화 기관’을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협력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범위를 넓히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역 공공도서관이 지역 공동체 및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VI. 결 론

최근 국가도서관위원회(2024)의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과 연계하여 도서관 시책이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도서관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을 위해 도서관 환경 및 현황 분석과 이해 관계자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 이해 관계자로 이용자와 도서관 전문가뿐만 아니라 직접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로서 도서관 직원의 인식 조사 결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C시의 사례를 통해 도서관 직원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 수립을 위한 4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 수립 방향으로 첫째, 지역 특성 반영과 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C시 도서관의 특성화는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찬성과 공공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으며, 직원 의견을 반영해 균형적인 차원에서 거점별 특성화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도서관 건립의 적정성 검토와 그에 따른 전문 인력 배치이다. 신규 건립보다는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며, 건립 시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셋째, 공공도서관 역할 및 기능 재정립과 조직개편이다. C시는 독서 활동 지원, 문화활동 기회 제공, 복합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 수립이다.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문화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성장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주체인 도서관 직원들의 의견과 인식 조사를 통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도서관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다만, C시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다른 영향적 요인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곽승진, 장덕현, 노영희, 강은영, 김정택 (2017). 울산대표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133-161. <http://dx.doi.org/10.4275/KSLIS.2017.51.3.133>
-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출처: <https://www.clip.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8&boardNo=1754&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1>
- 김보일 (2023).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1), 27-51.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1.027>
- 심효정, 노영희 (2022). 특화도서관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3), 47-72. <http://dx.doi.org/10.16981/kliss.53.3.202209.47>
- 심효정, 이용훈 (2024). 의왕시 도서관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도서관 경영 전략 제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3), 113-140. <http://dx.doi.org/10.16981/kliss.55.3.202409.113>
- 윤현수, 장인호, 심효정 (2024). 가평군 공공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3), 287-303. <http://dx.doi.org/10.4275/KSLIS.2024.58.3.287>
- 진경선, 신동희 (202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 양평군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1), 403-421.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1.403>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24). Fourth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 (2024-2028). Available:

<https://www.clip.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8&boardNo=1754&se>

- 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1
- Jeon, Kyung-Sun & Shin, Dong-Hee (2022). Research on revitalizing public libraries reflecting community characteristics in Yangpyeong-gu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1), 403-421.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1.403>
- Kim, Bo-Il (2023). A study on library use and reading culture promotion policies reflecting local community characteristics: focusing on Chungcheongnam-do.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1), 27-51.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1.027>
- Kwak, Seung-Jin, Chang, Durk-Hyun, Noh, Young-Hee, Kang, Eun-Yeong, & Kim, Jeong-Taek (2017). A study on user's perception survey for activation of Ulsan representative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3), 133-161. <http://dx.doi.org/10.4275/KSLIS.2017.51.3.133>
- Sim, Hyo-Jung & Lee, Yong-Hun (2024). A study on the presenting library management strateg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mid-to long-term plans for the libraries in Uiwang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3), 113-140. <http://dx.doi.org/10.16981/kliss.55.3.202409.113>
- Sim, Hyo-Jung & Noh, Young-Hee (2022). A study on the operation status of specialized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3), 47-72. <http://dx.doi.org/10.16981/kliss.53.3.202209.47>
- Yoon, Hyun-Soo, Chang, In-Ho & Sim, Hyo-Jung (2024). Perception survey research for establishing a mid- to long-term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Gapyeong-gu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8(3), 287-303. <http://dx.doi.org/10.4275/KSLIS.2024.58.3.287>

